

안동권씨 전국 청장년협의회 제6차 정기총회 개최

권명달 회장, 안동권씨 전국 청장년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



권명달 안동권씨 전국 청장년협의회 신임 회장(오른쪽)



권명달 회장이 전임 집행부 권갑수(오른쪽) 회장과 권영홍(왼쪽) 사무국장에 감사패 전달



권명달 회장이 권영청(오른쪽) 대총회 회장에게 꽃다발 전달

안동권씨 전국 청장년협의회 제6차 정기총회가 2023년 7월 12일 울산시 북구 진장유동로 43 한가위 식당에서 권갑수 청장년협의회 회장, 권영홍 청장년협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권명달 울산청장년회장, 권익호 울산총친회장, 권혁환 울산총친회 사무국장, 권은목 울산청장년회 사무국장, 권기대 울산청장년회 총무, 권창성 영천청장년회 회장, 권혁진 영천청장년회 수석부회장, 권인섭 의성청장년회 회장, 권순보 안양청장년회 회장, 권순용 전 서울청년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날 총회에는 권영청 대총회 회장, 권영상 대총회 상임부회장, 권오영 대총회 고문, 권갑현 홍보편집위원장, 권행환 편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영홍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국민의례, 시조 테사공에 대한 판매, 참석자 소개, 회장 인사, 축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회칙 개정안 보고, 취임사, 감사패 수여 순으로 개최되었다.

먼저 정기총회가 개최되기 전 권명달 울산청장년회장은 권영청 대총회 회장에게 대총회 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권갑수 회장은 제6차 전국 안동권씨 청장년회 개최를 선언했다. 권영홍 사무국장은 32개 청장년회 중 6개 지역에서 참석했고 17개 지역에서 위임장을 보내왔다고 보고하며 성원 보고를 했다. 권갑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여름 장마철이라 참석이 저조하다. 32회 안동권씨 울산체육대회를 코로나로 인해 급하게 준비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잘 치러주셔서 울산 회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24일 권영청 대총회 회장께서 만장일치로 추대되어 취임하셨는데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청장년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하며, 100만원을 기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영홍 사무국장은 20만원, 권순용 전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은 10만원을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권영청 회장은 축사에서 "전국 청장년협의회 총회를 축하한다. 평일이라 참석은 저조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니 이 모임이 중요한 모임이다. 권영상 상임부회장이 체육대회, 송조사상, 효자 효부 찾기운동 등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사업을 통해 대총회가 크게 발전하리라고 믿는다.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은 게 있다. 대총회 인건비 수천 지 1달이 지났다. 빛이 2억이다. 정관에는 회원이 있는데 대총회에는 회원이 없다. 100만 족친이라고 하는데 회원은 없고 임원뿐이다. 대총회 운영은 임원 회비, 찬조금, 기부금, 홍보 대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회원을 확보해야 한다. 회원에게는 홍보를 다 보내드리겠다. 회원이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대총회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 1차 목표는 1만 명이다. 1만 명이 홍보 협찬

다. 이런 지역은 지역총친회가 나서서 청장년회를 조직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번엔 권영청 회장께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저에게 청장년위원회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 조직하고 있다. 부위원장과 위원도 모셔야 한다. 수시로 모여서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다. 청장년체육대회는 내년 안동대회부터 오전에는 회원대회를 하고 오후에는 청장년체육대회를 하면 어떻까 한다. 내년 4월 안동권문의 분향인 안동에서 제1회 회원대회가 열린다면 그 의미도 있을 것 같다. 안동대회가 제1회 회원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 청장년위원회를 통해 자주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권오영 고문은 대총회장께서 울산에서 개최된 전국 청장년체육대회에 참석하셔서 환영한다. 여러분 또한 울산을 찾아주셔서 고맙다. 100만 족친을 위해 큰 뜻을 갖고 계획하는 사업들이 회장님 복안대로 추진되어 대총회가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회원은 각 지역별 인구비례로 영입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울산, 영천 등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을 짜서 내려주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권익호 울산총친회장은 대총회가 빛이 없어야 하는데 2억이나 빛이 있다고 하니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울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건강 잘 챙기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영홍 사무국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권순용 전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이 감사보고를 했다.

기타 토의에서는 권영홍 사무국장은 춘추향제 제수 봉송 건에 대해 설명했다. 매년 춘추향제 때 현재 안동 능곡회에서 제수를 봉송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에는 당해연도 체육대회를 주최하는 지역청장년회에서 제수를 봉송하기로 했었는데 참석율이 저조하여 청장년협의회에서 안동 능곡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현재 청장년협의회에서 안동 능곡회에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능곡회에서 이번엔 20만원을 더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에 여러 회원들은 수고비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번에는 6개 지역만 참석했으니 결정을 유보하고 보다 많은 지역이 참석했을 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권갑수 회장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어서 전국 청장년협의회 차기 회장에 권명달 울산청장년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사무국장에는 권은목 울산청장년회 사무국장이 맡았다. 권명달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급하게 날짜를 잡았는데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 울산에서는 회원이 30여 명밖에 되지 않아 어렵게 체육대회를 치렀다. 올해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했다. 각 지역 청장년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덕분에 잘 치렀다. 고맙다. 대총회가 어렵다고 하니 도움도 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권명달 회장은 그동안 전국 청장년협의회를 위해 수고한 전임 집행부 권갑수 회장과 권영홍 사무국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권영청 회장은 전국 청장년회 신임 집행부가 출범했으나 내년 안동대회에서부터 전국청장년 체육대회 때 회원대회를 개최하는 문제를 지금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명달 회장은 좌중에 찬반 여부를 묻고 내년 안동대회에서부터 안동권씨 전국 청장년체육대회 때 회원대회를 개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3시 20분에 총회를 모두 마쳤다.

권행환 편집국장

◆수필

잘살고 있는 거겠지?

배영숙

배영숙 회장은 권오을 전 국회의원(대총회 부회장)의 부인이다. 현재 에세이스트 작가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광화문에 위치한 고평상계탕 대표이사이다. 배영숙 대표이사는 정치인 남편 권오을 전 국회의원의 보조자로 노후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다녔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고평상계탕 광화문점을 운영하며 쓴 수필 <잘살고 있는 거겠지?>(에세이스트 110호(23년 7-8월호)에 게재)는 너무 진솔하여 읽는이의 가슴을 울리게 한다. 100세 시대,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들의 모습 또한 어른거린다. 배영숙 대표이사는 "창작수필"로 문단에 등단(2000)하였고 제10회 정경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수필집으로 "그대의 명함"이 있다. 편집자주

오전 8시 40분에 집을 나서서 나의 새로운 일터에 도착하면 9시 반쯤 된다. 정식 출근해본 경력은 결혼 전 교사 생활 1년과 동아출판사 몇 개월이 고작이다. 그런 내가 남들은 다 정년퇴직한 나이인 60대 중반을 넘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 생각해 보면 한심할 정도로 노후 준비를 못 했다. 그렇다고 경제관념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대학 시절에도 아르바이트하였고, 결혼 후에도 아이들 어릴 적부터 집에서 과외 아르바이트하였다. 그러다 남편의 보조자로 치열하게 뛰어다녀야만 했다. 노후 같은 걸 생각할 겨를 없이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었고, 그 일들에 빠져 지나다가 문득 그 모든 일로부터 놓여야 할 때 남아 있는 건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노후의 시간이다. 그리고 자신을 건사할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다.



정경문학상 수상 당시 권오을 전 국회의원과의 배영숙 대표이사

경이다. 이런 생동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우리 식당은 직원들이 베트남, 몽골, 조선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아침마다 어미 새를 기다리는 새끼 새 마냥 내 손가락이 열리는 것을 기대에 찬 시선으로 바라본다. 집에서 돼지고기 주물럭이나 카레 등 반찬을 해 나갈 때도 있지만 급할 때는 김밥이나 빵을 사 간다. 간혹 비싼 샌드위치와 모닝커피로 한턱내기도 한다. 직원들이 재미있다고 셀카를 찍는다. 그들과 함께 웃고 농담하다 보면 외국에서 생활하는 자식들 모습이 문득문득 겹쳐온다. 아! 자식들이 그림이 그림이다.

식당 문이 열리자마자 혼자 와서 소주 한 병을 곁들여 삼계탕을 먹는 사람도 있다. 아침을 못 먹었나, 속상한 일이나, 공연히 마음 좋지 머 덤으로 뭐라도 갖다 주게 된다. 맛있게 잘 먹었다고 치하하는 사람, 코로나로 문을 닫아서 섭섭했다고 하는 사람, 이야기에 이야기에 더해지면서 낯익은 단골이 늘어간다. 한가로운 시간대에 오는 손님에게는 커피를 내려 대접하기도 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어슬픈 몽글리시로 말을 건네기도 한다. 세상 재미중에 사람 구경만큼 재미있는 것이 있을까. 나는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들 만났고 있다.

에너지가 남아 있는 어떤 날은 교보문고에 들러 몇 권의 책을 사고 어떤 날은 씨네큐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도 한다. 불췌 내가 예기치 않게 삼계탕을 팔고 있지? 자기 모습이 낯설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지만, 돌아보면 내 인생 어떤 순간도 낯설지 않은 시간은 없었다. 처음 가는 길, 예기치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겠지.

광화문으로 출근한 지 1년이 지났다. 동생이 광화문점을 직접 책임지고 맡아 보라고 한다. 내가 식당을 운영한다고? 더러 겁이 났다. 살면서 몇 번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친 적이 있다. 그리고 실은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맹목이다. 한 달가량 몽그적거리다가 일은 진전되어 대표이사 자리를 맡게 되었다.

어제는 여섯 시간의 위생교육도 받았다. 봉급지에서 운영자가 되고 보니 책임질 일들이, 신경 쓸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근무 시간이 더욱 늘어났다. 며칠 전부터 피부가 먼저 알려주기 반응을 보인다. 북한산 공기 속에서 지나다가 도심지 식당에 종일 있으려니 힘이 든다. 정치관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힘들어했으면서 왜 나는 또 사람들 속으로 나가는 것인지?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삶의 의미를 묻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글을 썼으면, 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독한 사람만이 자신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나는 그럴 위인이 못 되는 듯하다. 그냥 맥없이 사람들 좋아하고 사람과 어울리고 있다.

그래, 내 삶은 오늘 이 순간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감, 그 모든 인연의 총체일 것이다. 나 잘살고 있는 거겠지?

권세현 중국 상해아태영화공사 초청 배우

'2023 월드뷰티앤패션모델턴트컴페티션' 진(眞) 수상

권세현(추미공과 35세) 상해아태영화공사 초청 배우가 16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소재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된 '2023 월드뷰티앤패션모델턴트컴페티션'에서 진을 수상했다.

이날 대회는 월드그랑프리수프림조직위원회와 APHCA 세계연맹이 공동 주최했으며, 예선을 거쳐

선발된 50명이 본선에 출전해 드레스와 한복 등을 입고 경연했다.

권세현씨는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를 졸업해 지난 2019년 중국 상해아태영화공사(회장 왕홍칭) 초청 배우로 선발됐으며, 중국 푸단대 객원교수와 남양주시 홍보대사를 역임했다. 권행환 편집국장

